

# 전남, 호우·태풍 농업 피해 지원금 200억 늘어 840억 지급

정부가 지난 8월 초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1984억원과 9500억원으로 확정했다. 공공시설 복구는 1~2년에 걸쳐 원상 또는 개선 복구하고 사유시설은 지원비를 지급한다. 사유시설 복구의 경우 재난지원금 인상 조정으로 수재민이 받는 지원금은 이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을 1984억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사유시설 피해액 269억원, 공공시설 피해액 1715억원이다. 피해 복구비용은 9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유시설 복구액은 350억원으로 주택 침수·파손, 농작물 침수·유실 피해 등을 복구하거나 지원하는 비용이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해 추석 전 지급되도록 전남도는 힘쓰기로 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9154억원으로 국비 82%, 지방비 18% 수준으로 조성 비율이 결정됐다. 유실된 하천제방, 도로, 산 등을 복구하는 데 쓰인다. 올해는 응급 복구와 복구를 위한 설계 작업 등을 하고 1~2년에 걸쳐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인상 조정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3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은 약 30%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전남도를 비롯한 피해 지자체 건의를 받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정부 재난지원금을 인상했다. 자연재난 복

정부 재난지원금 30% 인상  
집중호우 피해액 1984억 확정  
지원금 추석전 지급 최선

전남도 피해능가 274억원 용자

구비 지원 인성품목은 농식품부 123개-해양수산부 71개-산림청 31개 등 농약대-대파대-가축입식비-시설복구비의 지원 단가에 실거래가를 반영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약대가 벼(1ha당)는 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올랐고, 채소류(1ha당)는 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과수류(1ha당)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상승했다.

대파대는 벼(1ha당)의 경우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배(1ha당)는 271만원에서 402만원으로, 비닐하우스 내재해형(㎡당)은 5700원에서 9190원으로 인상됐다.

수산업 분야도 굴(연승수하식·100m당) 시설은 40만4000원에서 53만3000원으로, 넙치(작은고기·마리당)는 521원에서 4566원으로, 뱀장어(큰고기·마리당)는 2750원에서 1만1896원으로 상승했다.

산림 분야 농약대 지원은 수실류(밤·㎡당)는 110원에서 249원으로, 산채류(터덕·취나물 등 ㎡당)는 105원에서 240원으로, 대파대는 표고자목(1.2m·본당)

의 경우 3139원에서 4103원으로 올랐다.

복구비 지원 단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됐으며 인상된 지원 단가는 올해 7월 28일 이후 집중호우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지역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 분야 복구 지원비는 애초 644억원에서 200억원가량 늘어난 8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 분야 복구지원비도 기존 지원액 31억원에서 인상 기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8월 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비는 추석 전 지급되도록 준비 중이며, 3차례 태풍 피해 복구 지원비는 10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해 주민 생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책도 추진한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용자 지원은 도내 3031농가를 대상으로 274억원을 용자하는 내용이다. 고정금리(1.5%)와 6개월 단위 변동금리(9월 기준, 0.97%)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ha당 벼 522만원, 배 2637만원, 사과 2534만원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용자를 지원한다.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1167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농가는 용자금 27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감면(1.4%→0%) 받게 되며, 상환기간



전남도가 농업분야 호우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를 위해 644억원서 30% 인상된 복구지원비를 책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한 농가.

도 피해를 30~49% 농가일 경우 1년간, 50% 이상 농가는 2년간 연장 해준다. 해당 시군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농협에 명단을 통지하면 일괄적으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현재 전남지역 이재민은 모두 186명으로 나타났다. 구례지역 163명, 담양 11명, 장성 7명, 곡성 3명, 함평 2명으로 이들은 농협연수원, 마을회관, 경로당, 친인척집 등에서 머무르고 있다. 전

남도는 정부 지원을 받아 166명에게 임시 조립식 주택을 추석 전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명은 추석 전 주택 수리를 마치고 귀가하도록 돕기로 했다.

/김홍희 기자 khh@kwangju.co.kr

## 달같은 덤...솔솔한 닭 키우는 재미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9) 계림수필

드디어 우리 닭이 알을 낳았다. 딸아이가 인공부화기로 부화시킨 토종닭 병아리를 아파트에서 키우기 힘들다며 손바닥만 한 마당에 있는 우리 집으로 보내온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예기치 않게 닭장을 짓고 닭을 치기 시작했는데 모이와 물을 닭장 안으로 들이밀 때마다 병아리들과 눈을 맞추게 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 때마다 "아아 앞으로는 후라이드 치킨과 삼계탕은 못 먹을 것 같구나!"하고 생각했다. 우리 집 닭과 치맥의 닭은 다르다는 야릇한 논리로 그 다짐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지만 말이다.



피카소 작 '암탉과 병아리'

스렵게 보이도록 수탉을 풍자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닭을 키우다보니 새삼 닭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림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닭을 키우면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일기처럼 철학적 사유의 글을 쓴 도올 김용옥의 '계림 수필-봉헤처럼 살리라'도 열독하게 된다. 닭을 키우면서 달걀 속 생명을 생각해서 달걀 프라이도 먹지 못한다는 이 시대 최고 지성은 역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 민주, 윤미향 의원 당직·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또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하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당윤리감찰단은 '제명'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이들 의원들의 제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

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하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대표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타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추석연휴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

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감염 확산 우

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전액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2021. 1. 18(월)

임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